

제주어 몇 어휘에 대하여

강 영 봉*

1

石宙明(1947)의 『濟州島方言集』은 제주어에 대한 최초의 자료집이란다. 의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세계적인 나비학자로 잘 알려져 있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값어치 있는 작업임에 분명하다. 자료에 이은 2편 「고찰」에는 제주도방언과 타방언과의 공통점과 상관성(1장에서 15장까지), 고어와의 관계(16장), 외래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17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외래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127~130) 가운데 특히 蒙古語에서 유래한 어휘는 주목을 끈다. 몽골어와 관련하여 '가라말'에서부터 '홋솔'까지 나열하고는, "以上과 같이 前篇에 記載된 語彙 7000餘個中 蒙古語에 關係된 것은 拔記하면 實로 240에 達한다"라 역설하고 있다. 240여 어휘가 몽골어 차용어라면 실로 많은 숫자이다. 李基文(1991: 168)의 지적대로 재고를 요하는 어휘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몇 어휘 곧 '마·보태·부에·엔년(엔년아)'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차용어 관계 확인 기준은 李基文(1991: 244~246)이 제시한 음운론적 기준, 형태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 그리고 어휘론적 기준에 의한다. 음운론적 기준이란 질서 정연한 음운 대응이 결과라야 한다는 기준이며, 형태론적 기준은 차용어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형태론적 특징을 말한다. 의미론적 기준은 의미의 국한이며,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어휘론적 기준은 그 언어의 어휘 체계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말한다. 특히 여기서 적용될 음운 대응은 李基文(1991: 136~7)에서 제시된 결과를 따른다.

이 글에서 인용된 자료집은 몽골 문어는 Lessing(1960), 『元朝秘史』는 Haenisch(1939), 『華夷譯語』는 Lewicki(1949~50), 오르도스 방언은 Mostaert(1941), 칼묵 방언은 Ramstedt(1935)에 따른다.

2

(1) 마

이 ‘마’는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건넬 때 하는 말’로, 중앙어 ‘자’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石宙明(:128)에는 “마·—·자”(이 순서는 ‘제주어·몽골어·표준어’ 순이다. 이하 같다.)로 기록, 몽골어와 동형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몽골어로는 ‘ma’나 ‘mai’가 있다. 제주어와 차이가 있다면 연장자나 연하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터키어원사전』(1972: 765)에는 감탄사로, ‘ma/me’(an exclamation, ‘here you are!; take this!’, and the like.) 두 어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후자 ‘me’는 현대몽골어의 ‘mai’에 맞먹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다 음의 칼묵 방언 그리고 오르도스 방언은 참고가 될 것이다.

몽골 문어: ma: (=mai) exclam, here, take it.

칼묵 방언: ma: ninom! nun nimm!

mā: nun! nimm! sieh da!

오르도스방언: mā: tiens! prends! (quand on donne quelque chose)

(2) 붓

石宙明(:128)에는 “보태·보타이·태 태보(胎)”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

서 ‘태’는 한자어 ‘胎’에 해당된다면 문제는 ‘보’에 있다. 이 ‘보’가 바로 제주어 ‘뵓’에 맞먹는 어휘다. 제주어 ‘뵓’은 ‘아깃뵓’·‘아깃방석’이라고도 말해지기도 한다. ‘아깃방석’에서 알 수 있듯이 ‘뵓’이란 아기 곧 태아가 머물러 있는 곳이다. 아기집인 셈이다. 아기집이라고 한다면 아기(태아)를 둘러싸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 ‘뵓’은 ‘싸다’ 또는 ‘싸는 물건’과 관련이 깊은 어휘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자어와의 관계로, ‘襦·袱·襦’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보르기 보’(『訓蒙字會』에는 ‘포닥이 보’)·‘보 북’(『廣才物譜』에는 ‘포닥이 강’)이기 때문이다. ‘보르기’는 지금의 ‘보자기’의 의미이고, ‘보’ 또한 ‘보자기’이기 때문이다.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 襦: 보르기 보(『訓蒙字會』)¹⁾
포닥이 보(『字類註釋』)
두렁이(『廣才物譜』)
- 袱: 보 북(『倭語類解』)
보 북(『廣才物譜』)
*襦袱 보(『同文類解』)
*包袱 보(『譯語類解』·『方言類釋』)
- 襦: 보르기 강(『訓蒙字會』)
포닥이 강(『字類註釋』)
으허 업고 띠는 슈건(『廣才物譜』)
- 襦襦: 아희 깃(『蒙語類解』)
강보(『倭語類解』)

『字類註釋』의 ‘포닥이’는 ‘포대기’를 말하며, 제주어로는 ‘포대기’라 하기도 하지만 그냥 ‘포’라 하기도 한다. 『廣才物譜』의 ‘두렁이’는 현대어와 같다. ‘襦’에 대한 『廣才物譜』의 ‘으허 업고 띠는 슈건’은 제주어 ‘뚜

1) 동경대학본에는 ‘보르기 보’로 되어 있는데, ‘보르기 보’의 잘못된 것 같다.

데기'와 바로 연결되고 있어 흥미롭다.2)

그런데 이 '보'는 예문에서 보듯 끝자음으로 'ㅎ'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ㅎ'이 끝자음으로 끝나 폐음절이 되니 발음에 눈여겨볼 일이다.3)

보호로 빠드리더라(『蒙譯小學』)

각각 혼 盤으로때 담아 보호로 빠 더피(『家禮諺解』)

내 衣裳과 니블 반 보홀 다 터시니(『朴通事諺解』)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石宙明이 지적한 대로 몽골어와의 관계다.

'싸다·포장하다'에 해당하는 몽골어는 'boyus-'이다. 이 동사 어간에 다 접사 {-s}4)가 연결되어 파생어 'boyus'가 형성되는데, 이 어휘는 '가축의 새끼' 또는 '태아'라는 뜻을 지닌다. 語中에 있는 -γ-는 아주 약한 [g]로 약화되어 나타나지 않음도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boyus'라는 어휘는 현대 몽골어에서는 'boos(ᠪᠣᠰ)'로 나타난다. 칼목 방언과 오르도스 방언도 좋은 참고가 된다.

몽골문어: boyus; embryo, fetus; pregnant(of animals).

칼목방언: bös(selt); trächtig(von tieren).

오르도스방언: Bus(Bös); toile de coton, étoffe pour faire des habits.

2) 『체주어사전』에는 '뚜데기'를 "해너들이 간편한 이불로 삼거나 추위를 막기 위하여 어깨에 걸치는, 누비어 만든 자그만 이불 비슷한 것.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을 때 들이치는 누비어 만든 것으로써 대용하기도 함"이라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설명이 바로 '오희 업고 띠는 슈건'에 해당한다.

3) 현대 표준발음법 제 16항 '한글 자모 발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곧 '교'은 "피오비"가 되지만, 'ㄷ ㅈ ㅊ ㅋ ㅌ ㅎ'은 각각 "디그시 지으시 치으시 키으시 티으시 히으시"로 발음된다.

4) 접사 {-s}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 예를 보면 sige-(소변보다) > siges(소변), kögege-(부풀다) > köges(거품) 등이다.

(3) 부에

石宙明(128)에는 “부-에 · — · 어부-바”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부-에’는 ‘어부에’라고도 말해지는데, ‘어린아이에게 업히라고 할 때에 재롱으로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 중앙어 ‘어부바’에 해당한다.

이 어휘에 맞먹는 몽골 문어는 ‘bübei’(=bybei; lullaby, rockaby)다. 아기를 재울 때 하는 ‘자랑자랑’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아기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는 ‘bübein dagun’(현대몽골어로는 ‘бүгвээн дуу’라고 한다)이다.

造語論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휘는 금지사 {bü}(~하지 마라)와 {bei}(공포 두려움)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합성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어린이와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語中の [b]는 약화된다면 제주어 ‘부에’와 같게 된다.

(4) 이녀

石宙明(129)에는 “엔년 · 이녀 · 짜님”과 “엔년아 · 이녀(짜님) · 예기야”라 기록되어 있다. ‘엔년’이 제주어에서 발화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잘못 조사된 어휘가 아닌가 한다. ‘따님’이라고 한다면 ‘엔년’일 수는 없다.

몽골어에 해당하는 ‘이녀’는 재구된 *ina-가 아닌가 한다. 『터키어원사전』(1972:182)에서는 ‘ina:ç’(intimate friend, confident, favourite)은 재구형 ‘*ina-’에서 온 어휘로, 몽골어에서는 일찍부터 차용되었으며, 한편 이 차용된 몽골어가 다른 언어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수흐바타르(сүхбаатар)의 『외래어사전』(1997: 232)에도 터키어에서 차용된 몽골어임을 밝히고 있다.

『華夷譯語』·『元朝秘史』·칼묵 방언과 오르도스 방언도 참고가 된다.

몽골 문어: inay; beloved, darling; favorite; loved friend; benevolence,

affection.

화 이 역 어: inu; sein.

원 조 비 사: ino; sein, ihr.

칼 목 방 언: in[G; freundschaft, liebe; freund, lieblich, geliebter.

오르도스방언: inak; ami, chéri; qui ont un commerce de galanterie l'un avec l'autre.

'이녁'이란 어휘가 사용된 중세 국어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生死는 이녁 2시오 煩惱는 프리오 涅槃은 더녁 2시라(『月印釋論』)

흐다가 지나거면 더너기 식심 릿 자해 人家 | 업스니라(『新羅老乞大』)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몽골어와 국어에서의 경우다.

현대 몽골어에서도 'in-'로 시작되는 'inay inatu inaru inaysi'와 'či-'로 시작되는 'činadu činaysi'가 '가까이' 대 '멀리', '이리로' 대 '저리로'라는 의미상 대립쌍이 된다.

반면 국어에서도 '이리' 대 '저리'·'여기' 대 '저기'로 짝이 됨도 확인할 수 있다.

3

借用語인가 同源語인가 구분을 어려운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차용어 관계 확인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동원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본 4개 어휘 가운데 '마·부에·이녁'은 同源語로, '봇'은 몽골어와 차용 관계에 있는 어휘가 아닌가 한다. '마'와 '부에'는 감탄사라는 품사적 공통점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다만 의미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견될 뿐이다. '이녁'은 『터키어원사전』의 언급대로, 터키어에 어원을 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몽골어와 同源을 이루고 있는 어휘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

'복'은 아직으로서는 좀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몽골어 차용어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 둔다.

<참고문헌>

-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출판부.
劉昌惇(1974):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출판부.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탑출판사.
李基文(1991): 『國語彙史研究』, 동아출판사.
제주방언연구회(1995): 『濟州語辭典』, 제주도.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4(옛말과 이두), 어문각.
玄平孝(1962·1995):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정연사.
Clouston, G.(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Oxford.
Haensch, E(1939): *Wörterbuch zu Monghol un niuca tobca'an*,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Leipzig.
Lessing, F.D(1960):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Lewicki, M(1949-50): La langue mongole des transcriptions Chinoise du XIV^e siècle, *Le Houa-yi yi-yu de 1389*, Warclaw.
Mostaert, A(1941-1944): *Dictionnaire ordos*, Peking.
Ramstedt, G.J(1935): *Kalmückisches Wörterbuch*, Helsinki.
Сүхбаатар, О(1997): *Монгол Хэлний Харь Үгийн Толь*, Уланбаатар.